동신대, 공기업·공무원 '취업사관학교'

취업 최강 대학으로 꼽히는 동신대는 최근 혁신도시 공기업과 공무원 취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기업·공무원 취업사관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 올 상반기 4명 등 혁신도시 공기업 2년간 17명 취업
공무원 90여 명 배출…보건의료 전문직 국시 413명 합격

400만원+α 장학 혜택…DS STAR·대정 프로그램 성과
390억여원 국가지원사업 석권…학생중심 교육 집중 투자

동신대학교는 호남에서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손꼽힌다.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그 비결은 바로 교과와 비교과를 넘나드는 교육프로그램에 있다.

동신대는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취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취업사관학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학기당 최대 400만원+α의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주는 DS STAR 프로그램과 전문분야별 우수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대정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대정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전 등 혁신도시 공기업취업반/공무원취업반/일반 취업반/해외취업반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집중 이수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힘입어 동신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광주·전남 일반 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 정규직 17명 합격, 공무원 90여 명 배출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성과가 돋보인다. 2019년 13명 정규직 취업에 이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한파 속에서도 한국전력공사 2명, 한전KDN 1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명 등 4명을 혁신도시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시켰다.

공무원 사관학교로서의 명성도 쌓고 있다. 2020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을 배출했으며 2020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는 무려 9명이 합격했다.

지난 한해 동안에는 소방공무원 18명, 경찰공무원 8명, 군사학과 소위 임관 27명, 국공립 유치원 교사 2명 등 공무원 90여 명을 배출했다.

또한 2020년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국가시험 합격자를 413명 배출하며 잘 가르치는 대학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학생중심 하이브리드 교육

동신대학교는 2학기 개강에 앞서 '2020학년도 동신 New Challenge 선언식'을 갖고 학사부터 수업까지 온오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뉴 챌린지 선언'은 학생을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 지역과 국가·국경을 초월한 캠퍼스의 확장,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수업 전면 도입, 생태 친화적 교육의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히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는 개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효과적인 혼합형 학습(블렌디드 러닝)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 대학 교육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장 직속의 '교육혁신원'을 설립해 교양, 전공, 비교과 등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작업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교수·학습 역량 강화 ▲교육의 질 관리 ▲교육성과 및 결과 측정·평가 ▲선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등 대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발전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교육의 질적 제고, 새로운 대학교육 모델 개발·도입 등 교육혁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가지원사업 석권…국비 390억원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A등급 획득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 3년간 혁신지원 사업비 116억 2700만원을 확보한 동신대는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석권하며 강한 지방대학의 성공시대를 새롭게 쓰고 있다.

올해 동신대는 교육부의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2년 2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5년 71억 3000만원)에 선정됐다. 정부 지원을 받아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에너지시티 산업 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에너지 신산업 전문 메이커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선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파란사다리 사업도 동신대가 올해 올린 성과다. 전체 4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8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협력대학으로 참여한다. 5억원의 예산을 받아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35억)과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 지원사업(40억),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서남권허브 사업(6년 58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10년 26억1500만원)에 선정, 정부 지원을 받아 학생 교육에 적극 투자하며 취업률과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언택트 시대' "크리에이터의 꿈 어때요"

동강대 평생교육처, 10월부터 '후진학선도형 사업'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산업체 재직자들의 직무역량 강화 등 학습자 눈높이 교육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평생학습 선진 모델 구축에 나선다.

동강대 평생교육처(처장 조남철)는 오는 10월부터 '2020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 후진학선도형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대학 후진학선도형 사업'은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이다.

동강대는 순천제일대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Ⅲ유형인 '후진학선도형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협력하고 지난 6월 호남·제주권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후진학선도형 사업' 프로그램은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지역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경력 단절자·재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정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지역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각광받는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 과정(콘텐츠 제작자·웹툰)과 컴퓨터 활용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재직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육아도우미 전문가와 재활운동처방사를 위한 교육이 준비됐다.

경력 단절자·재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정은 ▲커피 바리스타 ▲미용사(헤어) ▲서비스 강사 ▲제과제빵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정에 따라 국가 및 민간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모든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제과제빵사만 재료비 별도)다. 동강대는 오는 29일까지 수강자를 모집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과학여행

전남교육청 '2020 온라인 전남과학축전'

21일부터 3주간 온·오프 병행

전남교육청이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과학여행'을 주제로 '2020 온라인 전남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전남지역 과학교사연구회인 '과학을사랑하는사람들'이 주관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전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새로운 체험교육방식의 뉴노멀(New Normal)을 보여주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과학탐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한 뒤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해 교실이나 가정에서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번 축전에는 1110개팀, 3156꾸러미 1만368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재미마당, 신기마당, 창의마당 등 테마별로 나눠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참여마당을 통해 가족별 또는 학급별, 동아리별로 활동한 결과를 다시 탑재하게 된다.

또 과학창의UCC대회, 과학톡톡 발표대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 학생 개개인의 관심영역에서 다양한 탐구체험과 온라인 크리에이티브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학축전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온라인 과학축전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교육이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대-중기 공동 연구 수행 '전문가 양성'

중기부 R&D 사업 7개 과제 선정 22억 지원

취업·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광주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7개 과제가 선정돼 2022년 6월까지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광주대는 중소기업에 교수와 학생 등의 연구인력을 투입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고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과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3개 분야이며,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